

2012년도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VB-111/XI-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2년도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02.02)

[목차]

- | | |
|-------------------------------|---|
| 1. 2012년 1분기 수출전망 | 1 |
|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 3 |

작성 : 정보전략실 문진욱 과장(jw2003@kotra.or.kr)

감수 : 정보전략실 한선희 실장(shan@kotra.or.kr)

1. 2012년 1분기 수출전망

□ (총괄) 2012년 1분기 수출 증가율 보합세 예상

-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51.6을 기록, 前분기(53.6) 대비 2p 하락
- 2010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기록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11.1Q	'11.2Q	'11.3Q	'11.4Q	'12.1Q	전분기대비증감(p)
수출선행지수	52.7	57.5	58.1	53.6	51.6	- 2.0

□ (하락요인)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로 해외수요 감소

- 수입국경기 지수가 44.3으로 前분기 대비 1.5p 하락해 지수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유럽 34.2, 일본 34.9, 중동아 39.4 등 지역이 특히 낮은 수치 기록
- 하지만, 가격경쟁력(53.3), 품질경쟁력(58.6)이 '11.3분기 이후 지속 개선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를 저지할 것으로 분석
- 가격경쟁력 지수는 前분기 대비 0.2p 소폭 개선되었고, 품질경쟁력 지수는 1.8p 상승하는 등 최근 높아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보조지수 추이

구분	'11.1Q	'11.2Q	'11.3Q	'11.4Q	'12.1Q	증감(p)
수입국경기 지수	59.6	57.4	55.6	45.8	44.3	- 1.5
가격경쟁력 지수	53.1	53.6	51.0	53.1	53.3	+ 0.2
품질경쟁력 지수	57.7	58.4	57.3	56.9	58.6	+ 1.8

□ (지역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증가로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수하락

- 선진국 시장 : 재정위기의 중심에 있는 유럽은 前분기 대비 지수가 1.6p 하락한 47.2를 기록해 수출 감소까지 우려
- 일본(50.8)도 前분기보다 2.6p 감소, 수출증가세('11년 40%) 둔화가 불가피
- 단,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기대 반영으로 북미지수가 7p 대폭 개선

- 신흥국 시장 : 선진국발 경기둔화 여파로 신흥시장 쏠지역의 지수가 前분기 대비 하락
 - 중국(49.6), 중남미(48.2)의 경우 지수가 기준치인 50을 하회해 수출 여건이 前분기 대비 악화 예상
 - CIS(54.2), 중동아(53.1), 아시아(50.9) 지역 지수도 前분기 대비 크게 하락 하여 신흥시장 수출증가세의 둔화가 우려

지역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아시아	중남미	일본	중국	중동아	북미	유럽	CIS
'11. 1Q	51.8	59.1	46.7	53.5	49.4	53.7	52.7	53.9
'11. 2Q	57.3	55.1	57.2	56.0	58.0	62.8	58.1	51.3
'11. 3Q	61.1	62.7	49.1	62.7	53.1	57.2	55.1	62.0
'11. 4Q	55.6	53.5	53.4	54.1	55.8	52.8	48.8	60.8
'12. 1Q	50.9	48.2	50.8	49.6	53.1	59.8	47.2	54.2
증감(p)	- 4.7	- 5.3	- 2.6	- 4.5	- 2.7	+ 7.0	- 1.6	- 6.6

- (품목별) 자동차(54.7), LCD(43.8), 철강(47.6) 등 주력제품의 지수가 하락한 반면, 가전(54.0), 컴퓨터(52.3) 등은 前분기 대비 개선
 - 반도체, LCD 등 주력 IT 제품 지수는 50을 하회했으나, 무선통신, 가전 등은 前분기 대비 상승세로 반전
 - 무선통신, 가전 등은 북미 지역의 수요증가와 향후 저점 도달 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지난해까지 높은 수출증가세를 견인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도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前분기 대비 수출증가세가 둔화 전망
 - 단, 식품류(61.2)는 한류 확산 등의 긍정적 영향으로 증가세 지속 기대

주요 품목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품목	'11. 4Q	'12. 1Q	품목	'11. 4Q	'12. 1Q
무선통신	55.7	57.4	철강	52.5	47.6
반도체	48.7	48.7	석유화학	52.9	48.2
LCD	46.4	43.8	석유제품	62.0	38.9
가전	49.3	54.0	컴퓨터	45.2	52.3
자동차	55.8	54.7	섬유류	52.0	50.6
자동차부품	55.0	54.9	식품류	60.5	61.2
일반기계	53.3	51.1	기타	55.4	49.8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 (총괄) 해외 바이어 대상 오더금액 증감여부를 지수화하여 산출
 - 조사대상 바이어(기간 : 2011년 12월 1일~24일, 응답자 : 2,062개 해외바이어 및 주재상사)는 해당분기 오더금액이 前 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유지·감소 중 택일
 - 오더금액 증감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 등에 대해서도 설문, 보조지수 작성
- (산출) 오더금액 증가 및 유지 바이어 비중을 바탕으로 지수산출
 - 산출식 : $(\text{오더금액 증가 바이어 비중} + \text{유지 바이어 비중} \times 0.5) \times 100$
 - *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수 산출
 - 지수해석 : 지수는 0~1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50 이상이면 前 분기 대비 수출경기 호조, 50 미만이면 수출경기 부진을 의미

2012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04.12)

[목차]

1. 2012년 2분기 수출전망 1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3

작성 : 정보기획실 문진욱 과장(jw2003@kotra.or.kr)

감수 : 정보기획실 한선희 실장(shan@kotra.or.kr)

1. 2012년 2분기 수출전망

□ (총괄) 2012년 2분기 수출도 보합세 지속 예상

-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51.7을 기록, 前분기(51.6) 대비 0.1p 상승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11.1Q	'11.2Q	'11.3Q	'11.4Q	'12.1Q	'12.2Q	전분기대비증감(p)
수출선행지수	52.7	57.5	58.1	53.6	51.6	51.7	0.1

□ (보합요인) 불확실성 지속과 유가급등에 따른 수출동력 부족

- 다만 수입국경기 지수는 前분기 대비 5.4p 상승한 49.7을 기록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
 - 전지역의 수입국경기 지수가 개선되긴 했지만, 유럽(38.7), 중동아(48.4) 지역은 기준치 50을 여전히 하회
- 가격경쟁력(52.9), 품질경쟁력(58.7)은 양호한 수준 지속
 - 가격경쟁력 지수는 前분기 대비 소폭 0.4p 하락하였고, 품질경쟁력 지수는 0.1p 상승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보조지수 추이

구분	'11.1Q	'11.2Q	'11.3Q	'11.4Q	'12.1Q	'12.2Q	증감(p)
수입국경기 지수	59.6	57.4	55.6	45.8	44.3	49.7	+ 5.4
가격경쟁력 지수	53.1	53.6	51.0	53.1	53.3	52.9	- 0.4
품질경쟁력 지수	57.7	58.4	57.3	56.9	58.6	58.7	+ 0.1

□ (지역별) 선진국은 前분기 대비 하락, 신흥국은 증가세로 반전

- 선진국 시장 : 유럽 수출선행지수는 前분기 대비 0.9p 하락한 46.3을 기록해 수출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
 - 일본은 엔화의 약세 전환으로 前분기 대비 1.7p 하락한 49.1을 기록
 - 미국은 前분기보다 5.1p 감소한 54.7을 기록했으나 수출여건은 여전히 양호
- 신흥국 시장 : CIS를 제외한 전체지역이 前분기 대비 상승
 - 중남미(57.9), 중국(54.1) 지수가 각각 9.6p, 4.5p 큰 폭으로 개선
 - 중동아(54.0), 아시아(50.9) 지역은 보합세, CIS(49.6)는 4.6p 하락

지역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아시아	중남미	일본	중국	중동아	북미	유럽	CIS
'11. 1Q	51.8	59.1	46.7	53.5	49.4	53.7	52.7	53.9
'11. 2Q	57.3	55.1	57.2	56.0	58.0	62.8	58.1	51.3
'11. 3Q	61.1	62.7	49.1	62.7	53.1	57.2	55.1	62.0
'11. 4Q	55.6	53.5	53.4	54.1	55.8	52.8	48.8	60.8
'12. 1Q	50.9	48.2	50.8	49.6	53.1	59.8	47.2	54.2
'12. 2Q	50.9	57.9	49.1	54.1	54.0	54.7	46.3	49.6
증감(p)	0	9.7	-1.7	4.5	0.9	-5.1	-0.9	-4.6

□ (품목별) 컴퓨터(56.0), 석유화학(56.3), 섬유류(52.6) 등은 수출증가 기대, 일반기계(49.5), 가전(49.7) 등은 둔화 우려

- 반도체(50.0), LCD(48.4), 컴퓨터(56.0) 등 IT 품목들의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이들 제품의 수출 여건이 개선 기대
 - 윈도우 8 출시 등을 앞두고 그간 부진한 IT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자동차(54.7)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무선통신(52.9), 자동차부품(50.0), 철강(51.7) 등도 무난한 수준 예상
 - 이들 품목 지수들은 前분기 대비 보합세이지만 수요 및 선호도 증가 등 시장상황은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
- 일반기계(49.5), 가전(49.7)은 전체적인 증가세 둔화 우려
 - 유럽 및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지속 등으로 수요부진 예상

주요 품목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품목	'12. 1Q	'12. 2Q	품목	'12. 1Q	'12. 2Q
무선통신	57.4	52.9	철강	47.6	51.7
반도체	48.7	50.0	석유화학	48.2	56.3
LCD	43.8	48.4	석유제품	38.9	48.2
가전	54.0	49.7	컴퓨터	52.3	56.0
자동차	54.7	54.7	섬유류	50.6	52.6
자동차부품	54.9	50.0	식품류	61.2	58.9
일반기계	51.1	49.5	기타	49.8	51.2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 (총괄) 해외 바이어 대상 오더금액 증감여부를 지수화하여 산출
 - 조사대상 바이어(기간 : 2012년 3월 5일~20일, 응답자 : 해외바이어 및 주재 상사 근무자 2,156명)는 해당분기 오더금액이 前 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유지·감소 중 택일
 - 오더금액 증감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 등에 대해서도 설문, 보조지수 작성
- (산출) 오더금액 증가 및 유지 바이어 비중을 바탕으로 지수산출
 - 산출식 : $(\text{오더금액 증가 바이어 비중} + \text{유지 바이어 비중} \times 0.5) \times 100$
 - *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수 산출
 - 지수해석 : 지수는 0~1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50 이상이면 前 분기 대비 수출경기 호조, 50 미만이면 수출경기 부진을 의미

2012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06.28)

[목차]

1. 2012년 3분기 수출전망 1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3

1. 2012년 3분기 수출전망

□ (총괄) 2012년 3분기 수출 소폭 반등 예상

-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54.0을 기록, 前분기(51.7) 대비 2.3p 상승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11.2Q	'11.3Q	'11.4Q	'12.1Q	'12.2Q	'12.3Q	전분기대비증감(p)
수출선행지수	57.5	58.1	53.6	51.6	51.7	54.0	2.3

□ (반등 요인)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한국제품 선호도 지속

- 수입국경기,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등 보조지수가 前분기 대비 모두 하락
 -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수입국경기지수가 4.6p 하락, 가격경쟁력지수와 품질경쟁력지수는 각각 1.1p, 0.3p 소폭 하락
- 그러나 품질경쟁력 지수는 '12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58p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 3분기 가격경쟁력 지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보조지수 추이

구분	'11.2Q	'11.3Q	'11.4Q	'12.1Q	'12.2Q	'12.3Q	증감(p)
수입국경기 지수	57.4	55.6	45.8	44.3	49.7	45.1	-4.6
가격경쟁력 지수	53.6	51.0	53.1	53.3	52.9	51.8	-1.1
품질경쟁력 지수	58.4	57.3	56.9	58.6	58.7	58.4	-0.3

□ (지역별)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前분기 대비 증가세

- 선진국 시장 : 2분기 대비 북미는 1.7p 상승한 56.4p, 일본도 4.5p 상승한 53.6p를 기록해 두 지역의 3분기 수출이 양호할 전망
 - 단, 유럽은 1.8p 하락해 3분기에도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시장 :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前분기 대비 상승
 - CIS(61.0), 아시아(57.9) 지수가 각각 11.4p, 7.0p 큰 폭으로 개선
 - 중동아(58.1), 중국(56.2) 지역도 상승한 반면 중남미(52.7)는 5.2p 하락

지역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아시아	중남미	일본	중국	중동아	북미	유럽	CIS
'11. 2Q	57.3	55.1	57.2	56.0	58.0	62.8	58.1	51.3
'11. 3Q	61.1	62.7	49.1	62.7	53.1	57.2	55.1	62.0
'11. 4Q	55.6	53.5	53.4	54.1	55.8	52.8	48.8	60.8
'12. 1Q	50.9	48.2	50.8	49.6	53.1	59.8	47.2	54.2
'12. 2Q	50.9	57.9	49.1	54.1	54.0	54.7	46.3	49.6
'12. 3Q	57.9	52.7	53.6	56.2	58.1	56.4	44.5	61.0
증감(p)	+7.0	-5.2	+4.5	+2.1	+4.1	+1.7	-1.8	+11.4

- (품목별) 자동차(58.6), 반도체(58.6), 석유제품(56.0), 식품류(68.3) 등은 수출증가 기대, 무선통신(48.4), 섬유류(44.7) 등은 감소 우려
- 반도체(58.6), 식품류(68.3), 석유제품(56.0) 등의 지수가 2분기 대비하여 대폭 상승
 - 특히, 반도체는 윈도우 8, 인텔의 아이비 브릿지 등 출시로 시장 여건이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 자동차(58.6), 자동차부품(53.7) 등 품목도 3분기 호조 지속 기대
 - FTA 효과,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 등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 반면, 무선통신(48.4), 섬유류(44.7) 등은 수출 부진 전망
 -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효과 감소가 크고, 섬유류는 시장수요둔화와 경쟁심화로 인해 수출 부진 예상

주요 품목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품목	'12. 2Q	'12. 3Q	품목	'12. 2Q	'12. 3Q
무선통신	52.9	48.4	철강	51.7	55.6
반도체	50.0	58.6	석유화학	56.3	53.1
LCD	48.4	51.7	석유제품	48.2	56.0
가전	49.7	53.4	컴퓨터	56.0	52.3
자동차	54.7	58.6	섬유류	52.6	44.7
자동차부품	50.0	53.7	식품류	58.9	68.3
일반기계	49.5	50.2	기타	51.2	54.9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 (총괄) 해외 바이어 대상 오더금액 증감여부를 지수화하여 산출
 - 조사대상 바이어(기간 : 2012년 5월 31일~6월 15일, 응답자 : 해외바이어 및 주재상사 근무자 2,126명)는 해당분기 오더금액이 前 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유지·감소 중 택일
 - 오더금액 증감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 등에 대해서도 설문, 보조지수 작성
- (산출) 오더금액 증가 및 유지 바이어 비중을 바탕으로 지수산출
 - 산출식 : $(\text{오더금액 증가 바이어 비중} + \text{유지 바이어 비중} \times 0.5) \times 100$
 - *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수 산출
 - 지수해석 : 지수는 0~1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50 이상이면 前 분기 대비 수출경기 호조, 50 미만이면 수출경기 부진을 의미

2012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10.05)

[목차]

1. 2012년 4분기 수출전망 1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3

작성 : 정보기획실 문진욱 과장(jw2003@kotra.or.kr)

감수 : 정보기획실 오혁중 실장(hyeokoh@kotra.or.kr)

1. 2012년 4분기 수출전망

□ (총괄) 4분기 수출도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50.7p를 기록, 前분기(54.0) 대비 3.3p 하락
 - '10년 1분기(50.7p) 이후 최근 12분기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나, 기준치(50)를 상회해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11.2Q	'11.3Q	'11.4Q	'12.1Q	'12.2Q	'12.3Q	'12.4Q	증감(p)
수출선행지수	57.5	58.1	53.6	51.6	51.7	54.0	50.7	-3.3

□ (회복 장애요인)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주요국 시장 위축

- 보조지수인 수입국경기지수가 역대 최저치인 42.5p 기록
 -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경제불안 지속으로 수입국경기지수가 2.6p 하락
- 품질경쟁력지수(58.4) 및 가격경쟁력지수(51.7)는 전분기와 유사
 - 품질경쟁력지수가 '12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58p를 상회하는 등, 전세계적 경기둔화 속에서도 한국 수출품의 품질경쟁력은 여전히 양호
 - 가격경쟁력지수는 전분기 대비 0.1p 소폭 하락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보조지수 추이

구분	'11.3Q	'11.4Q	'12.1Q	'12.2Q	'12.3Q	'12.4Q	증감(p)
수입국경기지수	55.6	45.8	44.3	49.7	45.1	42.5	-2.6
가격경쟁력지수	51.0	53.1	53.3	52.9	51.8	51.7	-0.1
품질경쟁력지수	57.3	56.9	58.6	58.7	58.4	58.4	0.0

□ (지역별)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서 수출증가세의 전반적 둔화 우려

- 선진국 시장 : 일본은 3분기 대비 7.2p 하락한 46.4p, 북미는 3.5p 하락한 52.9p를 기록하는 등 수출증가율 하락이 예상
 - 단, 유럽은 1.1p 상승한 45.6p로 전기보다 수출둔화세가 소폭 완화 기대
- 신흥국 시장 :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前분기 대비 하락
 - 아시아(55.6), 중동아(54.5), CIS(53.7) 등지의 지수는 하락하면서도 기준치(50)를 상회했지만, 중국은 11.5p 하락한 44.7p로 기준치를 하회 (역대 최저)
 - 그 동안 수출이 부진하던 중남미는 2.7p 상승한 55.4p 기록

지역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아시아	중남미	일본	중국	중동아	북미	유럽	CIS
'11. 2Q	57.3	55.1	57.2	56.0	58.0	62.8	58.1	51.3
'11. 3Q	61.1	62.7	49.1	62.7	53.1	57.2	55.1	62.0
'11. 4Q	55.6	53.5	53.4	54.1	55.8	52.8	48.8	60.8
'12. 1Q	50.9	48.2	50.8	49.6	53.1	59.8	47.2	54.2
'12. 2Q	50.9	57.9	49.1	54.1	54.0	54.7	46.3	49.6
'12. 3Q	57.9	52.7	53.6	56.2	58.1	56.4	44.5	61.0
'12. 4Q	55.6	55.4	46.4	44.7	54.5	52.9	45.6	53.7
증감(p)	-2.3	+2.7	-7.2	-11.5	-3.6	-3.5	+1.1	-7.3

□ (품목별) 무선통신, 석유화학 등은 수출증가 기대, 반도체, 가전, 일반기계 등은 감소 우려

- 무선통신(60.3), 석유화학(53.2), 섬유류(47.3) 등의 지수는 3분기 대비 상승
 - 무선통신기기는 신제품 출시효과 등으로 전분기보다 11.9p 상승
- 자동차(50.7), 자동차부품(50.2), 철강(53.9), 석유제품(51.2), 컴퓨터(50.7), 식품류(56.6) 등의 지수는 3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기준치(50)를 상회
 -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급락은 피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반도체(49.2), LCD(47.1), 가전(44.8), 일반기계(43.7) 등은 지수가 기준치 아래로 하락하여 수출 부진 전망
 -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반적인 수요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주요 품목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품목	'12. 3Q	'12. 4Q	증감(p)	품목	'12. 3Q	'12. 4Q	증감(p)
무선통신	48.4	60.3	+11.9	철강	55.6	53.9	-1.7
반도체	58.6	49.2	-9.4	석유화학	53.1	53.2	+0.1
LCD	51.7	47.1	-4.6	석유제품	56.0	51.2	-4.8
가전	53.4	44.8	-8.6	컴퓨터	52.3	50.7	-1.6
자동차	58.6	50.7	-7.9	섬유류	44.7	47.3	+2.6
자동차부품	53.7	50.2	-3.5	식품류	68.3	56.6	-11.7
일반기계	50.2	43.7	-6.5	기타	54.9	53.7	-1.2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 (총괄) 해외 바이어 대상 오더금액 증감여부를 지수화하여 산출

- 조사대상 바이어(기간 : 2012년 9월 5일~9월 25일, 응답자 : 해외바이어 및 주재상사 근무자 2,125명)는 해당분기 오더금액이 前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유지·감소 중 택일
- 오더금액 증감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 등에 대해서도 설문, 보조지수 작성

□ (산출) 오더금액 증가 및 유지 바이어 비중을 바탕으로 지수산출

- 산출식 : $(\text{오더금액 증가 바이어 비중} + \text{유지 바이어 비중} \times 0.5) \times 100$
 *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수 산출
- 지수해석 : 지수는 0~1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50 이상이면 前분기 대비 수출경기 호조, 50 미만이면 수출경기 부진을 의미

1375 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글로벌 미즈니스 플랫폼

kotra



KPR130927

